

THE CLASSIC 500



ICON

결국 유머가
세상을
구원할거야

TRAVEL

꽃보다 시니어,
꽃보다 대만

HOTEL

펜타즈
호텔에서 보내는
나만을 위한
시간

CONTENTS

02	INSIGHT	동서양 고전 속 해학, 오래된 웃음의 숲을 거닐다
04	ICON	결국 유머가 세상을 구원할거야
08	TRAVEL	꽃보다 시니어, 꽃보다 대만
14	PEOPLE	마음속 길 따라 달리는 이해웅 회원 베풀어 기쁜 삶 사는 조영숙 회원
18	STYLE	메시지를 담은 패션, 트럼프와 오바마
20	FINANCE	저금리 시대 시니어 자산 관리 비법
22	CULTURE	사회 풍자의 정수, 오리지널 〈시카고〉 뮤지컬

24	PENTAZ HOTEL	펜타즈 호텔에서 보내는 나만을 위한 시간
32	LA GOUTTE	파릇파릇 봄으로 물든 식탁, 라구뜨 프리미엄 메뉴
38	FITNESS	봄맞이 건강 관리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40	MEDICAL	스마트 헬스케어, Emergency ID Card
42	HEALTH	명품 의료 검진 서비스, 건국대학교병원 헬스케어센터

44	NEWS	우수자원봉사 직원 인터뷰 커뮤니티 주요 소식 및 활동 캘린더 브랜드 뉴스
----	------	--

더 클래식 500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고품격 시니어 타운과 호텔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더 클래식 500 MEMBERSHIP MAGAZINE’은 계간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사내보 / 계간 THE CLASSIC 500 봄호 통권 30호 발행일 2017년 4월 11일 발행인 박동현
발행처 THE CLASSIC 500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90 +82-2-2218-5000 www.theclassic500.com
촬영 Standstill 박재홍 디자인&기획·편집 hongdesign& hongC +82-2-6916-4400



일상, 예술이 되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의 프리미엄 뷔페 라구뜨에 설치된 성연주 작가의 〈Eggplant no.2〉입니다. 가지라는 친숙한 음식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포착한 작품입니다. 더 클래식 500은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수준 높은 작품과 더불어 노래교실, 예술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응원합니다. 새롭게 변화한 〈더 클래식 500〉 매거진이 여기에 지혜와 철학, 정보와 공감의 콘텐츠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봄호에서는 ‘위트와 웃음’이 넘치는 읽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고전 속에서 찾아보는 웃음의 효용과 우리 시대 위트의 아이콘, 회원들과 함께 떠난 대만 여행기까지, 건강하고 즐거운 라이프스타일의 가치를 만나보세요.

오래된 웃음의 숲을 거닐다



웃음, 그 바탕에는 인간 본성으로서 진득한 삶의 철학이 배어있다.
언어와 풍속, 제도와 관습에 따라 표현은 달라질지언정 그 바탕은 같다.
삶에 대한 긍정, 타자를 향해 열린 태도, 불의에 대한 질타, 비극적인 세계관을 초월하는 힘.
조선 시대 양반 박이창,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 한마디에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웃음의 진리는 스며있다.

글 류정월(홍익대 교양학부 교수), 편집실 그림 국립중앙박물관, Dave Winer

위) 조선 시대 우리 선조들의 익살과 너그러움이 깃든 삶의 정서를 담아낸 김홍도의 풍속화 <행상>
아래) 세르반테스의 풍자문학 『돈키호테』 중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질주하는 모습

당대 유명인들에게서 찾은 해학의 웃음

『태평화화골계전』은 조선 초기 문장가 서거정이 모임이나 술자리 등에서 회자되었던 우스운 이야기를 모은 책으로 한국 골계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우스개를 옮겨 적은 것이 어떻게 고전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당대 유명인들이 웃음의 달인으로 등장한다. 그중 한 명이 박이창이다. 박이창은 공무를 수행하던 와중에도 우스갯소리를 한다. 청계천은 조선 시대에도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문신 이현로는 청계천을 깨끗이 하는 방도로 집집마다 오물통을 만들어 성밖으로 지고 나갈 것을 주장했다. 박이창이 들고는 손가락을 꼽아 보이며 말했다. “주인 영감 한 통, 주인 할멈 한 통, 아들 한 통, 며느리 한 통, 딸 한 통, 사위 한 통, 손자들이 각각 한 통, 시침이 각각 한 통, 노비 부부가 각각 한 통이면, 집에 통이 수십 개도 더 되는데, 그것을 성밖으로 누가 지고 나간단 말인가? 우리 집에는 수염 긴 놈만 하나 있는데, 그 놈 힘이 부족하면 나도 져야 하고, 내가 진다면 그대도 때때로 지겠구먼.”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박은 자칫 감정 싸움과 소모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이창은 너스레를 떨며 논쟁을 잠재웠다. 이현로도 동지계를 끄는 박이창의 모습을 떠올리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을 터, 박이창의 재치가 곤란한 상황을 유쾌한 상황으로 바꾸는 효용을 발휘한 것이다.

박이창 못지않은 인물을 서양에서 찾자면,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꼽을 수 있겠다. 소크라테스의 쾌활함과 자유로움, 위트는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회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 속의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인정된 신들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명에 반박하는 태도를 취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정치가, 철학자, 군인, 생활고에

찌든 가장까지. 대화 중 웃으면서 허를 찌르는 소크라테스식 위트가 유감없이 발휘된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하인을 지독하게 혼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형편없는 게으름뱅이에 먹기만 좋아하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런데 자네가 지금 말한 기준이라면 그대 자신과 하인 중에 누가 더 매를 맞아야 하는지 생각해봤나?” 소크라테스식 농담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지만 ‘합리성이 주도하는 진지한 이성적 교훈’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박이창과 소크라테스, 두 사람이 지향한 것은 그릇된 견해마저도 밝게 감싸주는 해학이다. 인간관계의 크고 작은 일들을 곱살맞게 수습하여 삶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건강한 웃음인 것이다.

사회 공동체를 치유하는 풍자문학

사회를 풍자하는 가상의 인물로 또 다른 차원의 웃음을 만들어낸 작품들도 있다. 조선 시대 풍자문학의 대표작 『배비장전』은 여색에 빠지지 않겠다며 장담하고 제주도로 떠났던 배비장이, 그곳 기생 애랑에게 홀딱 빠져 뒤주 속에 갇혀 망신을 당한다는 이야기다. 어리석은 주인공 배비장을 통해 당시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의 위선적이고 허세 가득한 모습을 풍자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역시 『배비장전』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조롱하고 풍자한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주인공 돈키호테는 기사도 문화에 도취되어 망나니짓을 하는데, 극도로 위험하고 우스꽝스러운 외곽으로 아무도 말릴 수 없다. 세르반테스는 당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낡은 기사도 문화를 돈키호테에 빗대어 신랄하게 비꼬았다. 현실을 보는 통찰력을 갖게 하는 동시에 당대 공동체의 삶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풍자와 해학에서 비롯된 웃음의 힘이다.

결국 유머가 세상을 구원할 거야



찰리 채플린의 영화 <키드>, 1921

요즘 좀처럼 웃을 일이 없다면?
유머로 무장한 이들에게 귀 기울여 보자.
영똥한 생각, 흥미로운 시선, 고유의 개성으로
현대 사회에 웃음을 선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신선한 자극을
얻어보는 건 어떨까.

글 김은성 에디터 사진 웅진주니어, 21세기북스, hayonstudio



엄마의 책임과 희생을
돼지로 변한 가족들에 빚대어
위트있게 담아낸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

웃음과 슬픔이
공존하는 희극의 아이콘

찰리 채플린

흑백 화면, 중절모, 콧수염, 지팡이, 익살스러운 표정과 과장된 몸짓. 20세기 최고의 희극인, 찰리 채플린을 설명하는 키워드다. 초기작 <키드>는 그가 추구하는 유머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침대에 누운 채플린이 다리를 펴니 찢어진 이불 사이로 발이 툭 튀어나온다. 곧 그는 찢어진 틈 사이로 머리를 밀어 넣어 이불을 망토로 만들어버리며 연민 섞인 웃음을 끌어낸다.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것은 채플린만이 할 수 있는 코미디였다. 이런 유머 스타일은 정신병을 앓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본인의 불우한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찰리 채플린의 대표작 <모던 타임즈>에서 그는 공장 노동자로 등장하여 기계 문명에 소외된 인간의 현실을 통찰력 있는 위트로 풍자했다. 주인공의 일은 나사못을 조이는 것. 컨베이어 벨트의 이동 속도에 맞추느라 가려운 곳을 긁을 시간도, 자신을 공격하는 벌을 쫓을 시간도 없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조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나머지 영덩이와 옷에 달린 단추도 나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대목에서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기묘한 감정이 솟구친다. 실제로 당시 공장 노동자들에게 이 영화를 상영했을 때 극장 안이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다고. 이렇듯 찰리 채플린의 유머는 슬픔과 맞닿아 있다. 찰리 채플린은 “삶은 깊이 들여다보면 비극이지만, 떨어져 보면 희극”임을 알았다. 그러니 그의 영화를 보며 설 새 없이 웃다가 눈물 한 방울 툭 떨어져도 놀랄 일은 아니다.

환갑을 넘기고도
이토록 재기발랄한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

엄마의 등골은 빠근하게 된다. 이를 악문 엄마와 달리, 등에 업힌 남편과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이 만연하다. 국내에서만 50만 부가 팔린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돼지책』의 표지 그림이다. ‘아주 중요한 회사’에 다니는 피곳씨와 ‘아주 중요한 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은 집에서 정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다. “빨리 밥 줘.” 피곳 부인 역시 직장에 나가지만 집안일은 혼자만의 몫이다. 어느 날, 피곳 부인은 “너희들은 돼지야”라는 쪽지만을 남기고 가출을 감행한다. 엄마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됐을까? 점점 돼지우리로 변하는 집에서 피곳씨와 아이들은 어느새 돼지의 탈을 쓴다.

앤서니 브라운은 ‘가정에서 엄마가 짊어진 책임과 희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이렇듯 위트 있게 풀어냈다. 그림 구석구석에도 피식, 웃음을 자아내는 디테일이 숨어 있다. 독자들은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그림책을 요목조목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가령 피곳 부인이 집을 나가자 벽지 무늬는 돼지 얼굴로 바뀌고, 거실 초상화도 돼지 얼굴로 변하는 등 집안은 온통 돼지 천국이 된다. 그뿐인가. “너희들은 돼지야”라는 쪽지를 집어 드는 건 사람 손이 아니라 돼지의 앞발이다! 인물을 희화화한 그림 덕분에 유머러스함은 감절로 풍부해진다. 환갑이 넘는 나이에 재기발랄한 위트와 따뜻한 온도의 유머를 그림책에 녹이는 앤서니 브라운. 그가 그림책 작가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과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수상한 건 우연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머러스하고
까칠한 여행 작가

빌 브라이슨

주변에 매사에 툭툭거리기 일쑤인 사람이 있는가? 무리에서 저만치 떨어진 채 귀엽게 툭툭대던 <꽃보다 할배>의 백일섭처럼 말이다. 그는 여행 작가 빌 브라이슨과 영혼의 단짝이 될지도 모른다. 빌 브라이슨의 빈정거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므로.

그가 지구 최북단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를 여행하며 묵었던 한 호텔에선 이런 일도 있었다. 웨이터가 고래고래 소리치던 무례한 손님을 눈 오는 길거리에 내동댕이치자, 빌 브라이슨은 붉으락푸르락하는 웨이터에게 기어코 농담 한마디를 건넨다. “설마 모든 손님들한테 나가는 길을 저렇게 알려주는 건 아니겠죠?” 기발하지만 시니컬하고 도발적이기까지 한 그의 유머 덕분에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깔깔거릴 수 있다. 건강을 위해 살을 좀 빼야겠다는 의사의 말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금세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다음의 이야기가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첫 주에 2kg가량 체중이 줄어 매우 기뻐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1년만 지나면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이어트 2주째, 소실된 몸무게를 회복하면서 다소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전 세계에 기아가 찾아온다 해도 나는 축적해 둔 지방 덕에 여전히 견딜 것이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는다.” ‘다이어트 실패’라는 암울한 상황도 그에겐 유머의 좋은 소재가 된다. 올해 67세를 맞은 빌 브라이슨은 뭔가 쌓일라치면 까칠한 유머에 훌훌 실어 날려버리니 무병장수할 팔자임이 분명하다.

사람을 웃게 하는
디자이너

하이메 아온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건가, 서커스 공연을 보러 온 건가. 스페인 디자이너 하이메 아온의 작품을 본 첫 느낌이다. 그의 손에서 고리타분한 흔들의자는 초록색 닭으로 변신한다. 닭의 벼슬을 잡으면 앞뒤로 흔들흔들, 몸이 움직인다. 사이드 테이블은 깜찍한 원숭이 웨이터의 접시로 탈바꿈한다. 테이블 다리 대신 원숭이가 자리한 탓이다. 들도 보도 못한 장난기와 친진함에 웃음이 터져 나온다. 멀티레그 캐비닛의 다리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타워들이 거꾸로 박힌 듯하다. 말 그대로 ‘멀티레그’인 다리는 바꿔 끼울 수도 있어 레고를 조립하는 듯한 재미까지 안겨준다.

하이메 아온은 미국 주간지 <타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 100인으로 선정할 만큼 세계의 주목을 받는 디자이너다. 그에게 디자인이란 생활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은 화려하고 흥미롭되 기능성도 뛰어나다. 이런 특징은 하이메 아온의 유쾌하고도 엉뚱한 캐릭터와 동일 선상에 있다. 한 잡지 기자가 특히 피하는 옷차림이 있는지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이랬다. “미니스커트요. 지나치게 여성적인 차림은 좀 그렇지 않겠어요?” 스튜디오의 위치를 묻는 말에는 “해발 1만 피트 상공에 있다”고 했단다. 워낙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디자인 작업이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이뤄진다는 의미일 게다. “결국 디자인은 사람을 웃게 해야 한다. 그래야 디자이너인 나도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하이메 아온.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면 그의 디자인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삶은 깊이 들여다보면 비극이지만, 떨어져 보면 희극”이라고 했던 찰리 채플린. 그는 흑백 스크린 속에서 중절모, 콧수염, 지팡이, 익살스러운 표정과 과장된 몸짓으로 20세기를 대표하는 희극의 아이콘으로 남았다.

Taiwan

꽃보다 시니어, 꽃보다 대만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풍요로운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시니어 타운 더 클래식 500. 지난 3월에는 여행 커뮤니티인 '꽃보다 청춘' 입주회원 30여 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대만 여행을 다녀왔다. 10대들의 수학여행 못지 않게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던 여행 현장을, 이해웅 회원의 글과 사진을 통해 느껴보자.

글 더 클래식 500 이해웅 회원



by Connie Ma, Flickr

오전 10시, “비행기가 곧 출발합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지 2시간 30분만에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타오위안에서 수도 타이베이의 시내까지는 40km 거리. 차를 타고 50분쯤 가니 타이페이 시내에 들어섰다. 길가에 온통 오토바이 행렬이다. 거리마다 오토바이 주차 선이 그어져 있을 정도로 스쿠터형 오토바이는 타이베이의 가장 대중화된 교통수단이라고 한다. 80년대 한국이 연상되는 정겨운 인상이다.

1 DAY

5000년 중국 역사의 보물 국립고궁박물관

타이베이에 도착해 가장 먼저 들린 곳은 국립고궁박물관이다. 이곳은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소장품과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고궁박물관이 현재 보유한 유물만 해도 회화, 불상, 자기, 옥, 청동 등 약 69만 점이 넘는다. 특히 3층에 있는 서태후의 부장품, ‘옥 배추’라고도 불리는 <취옥백채>는 꼭 보아야 할 유물이다. 완벽한 정교함에 케네디 대통령도 반하여 미국에서 초청 전시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들 소장품들은 1948년 장제스 총통이 중국 본토에서 철수할 때 가져온 것으로, 짐이 많아 금괴를 버리고 대신 택한 것이라는 일화도 있다.



by Jared Yeh, Flickr

2 DAY

소원으로 가득한 하늘 스펀

다음날은 스펀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 우리처럼 여행자들이 스펀을 찾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천등이다. 천등은 원래 주민들이 도적을 막기 위해 마을 간에 통보를 주고받던 용도로 날리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재운이나 건강, 길운 등을 비는 소원의 등불로 바뀌었다고 한다. 천등을 띄우는 언덕으로 올라가니 오래된 기차선로가 있다. 스펀 기차역은 지금도 기차가 운행하고 있다. 기차가 들어오는 시간이면 기차길 위에 있던 모든 사람은 양옆으로 이동하고, 기차가 지나간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천등 날리기에 집중한다. 우리는 사방 1m 얇은 종이로 만들어진 4면에 소원을 바라는 글귀를 적었다. 가화만사성, 건강제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늘로 날려보냈다. 스펀의 하늘이 금세 천등으로 가득해졌다.

아름다운 흥등의 도시 지우펀

소원으로 가득한 스펀의 하늘을 뒤로하고 타이완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지우펀으로 향했다. 일제강점기 흥등가였던 이곳은 한국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한국인들을 포함한 관광객들에게 유명세를 치르고 있었다. 좁고 가파른 계단 양쪽으로 오래된 낡은 상점에 빼곡하게 달린 흥등이 낭만적인 물결을 이루었다. 흥등이 모두 켜질 저녁 무렵, 돌계단 상층부 찻집에서 보이는 바다 전망 또한 일품이다. 향이 좋은 차 한 잔 마시며 지우펀의 고즈넉한 풍경을 음미해보기를 추천한다.

오랜 세월 자연이 빚은 예류 지질 공원

타이베이 시내에서 1시간 30분 정도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면 해수욕장과 온천,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예류에 닿는다. 희귀한 모양의 바위와 암석이 모여 있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 곳이다. 기암 괴석들은 바닷속에 있던 바위와 암석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해면 위로 솟아올라 만들어졌다고 한다. 침식과 풍화작용을 거치며 돌이 깎이고 각각 독특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는데, 지금도 바람과 파도에 의해 미세한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촛대 바위, 신발 바위, 양귀비 바위 등 저마다 독특한 형태를 한 바위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타이완의 총 면적은 약 3만

6천 km²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되는 크기의 섬나라이다.

태평양 서안에 있는 독립적인 섬들 중 하나이며 북쪽으로는 일본

오키나와 섬, 남쪽으로는 필리핀이

있다. 먼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지각운동으로 산봉우리와 언덕,

평평한 분지, 구불구불 이어지는

해안선 등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이 만들어졌다. 연중 평균

기온은 22℃로 누구나 여행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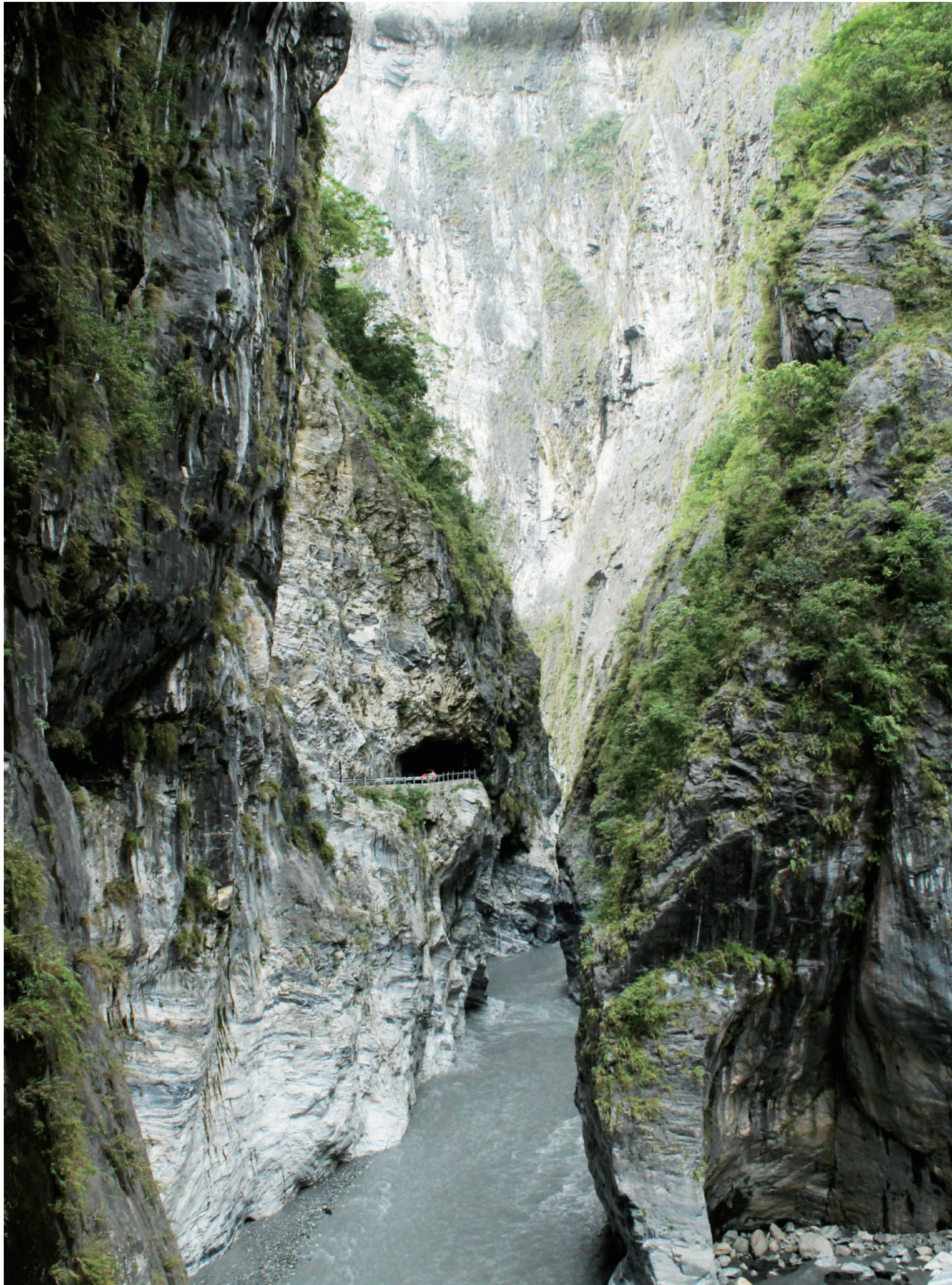
상점마다 걸린 흥등이 낭만적인 물결을 이루는 지우펀



소원을 적은 천등을 스펀의 하늘로 날려보내는 회원들



더 클래식 500 여행 커뮤니티 '꽃보다 청춘' 회원 단체 기념사진



대리석 절벽으로 이루어진 화련 타이루거 협곡

by Connie Ma, Flickr

3 DAY

타이완이 숨겨놓은 비경 화련 타이루거 협곡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에서 2시간 30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동부 해안도시 화련이다. 검은 모래로 이루어진 경치 좋은 치싱탄 해변을 둘러보고, 세계적인 대리석 산지인 타이루거로 향했다. 협곡은 화련현에 속한 국립공원으로 4백만 년 동안 흘러내린 물과 몰아치는 바람이 빚은 자연의 조각품이다. 깎아지른 듯한 대리석 절벽이 협곡을 끼고 있어 입구부터 웅장함이 느껴진다. 해발고도 3,000m, 길이 20km에 이르는 기암절벽 사이로 도로가 끊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이어진다. 협곡에 있는 동굴과 도로는 지질이 약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삽과 도끼로 길을 냈다고 한다. 이 날은 높은 협곡에 운무가 자욱하게 서려 있어 몽환적인 운치를 자아냈다.

잠들지 않는 도시의 밤 타이베이 101

타이베이 시내로 돌아온 제법 늦은 시간, 야경 감상을 위해 타이베이 101빌딩에 올랐다. 지하 5층, 지상 101층인 이 빌딩은 현재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하늘을 향해 뻗은 대나무 같은 형상 덕분에 타이완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89층 전망대까지 채 40초도 걸리지 않는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사방이 유리로 설계된 전망대에서 사방으로 감상할 수 있는 타이베이 시내 야경을 그야말로 장관이다. 창문을 따라 타이베이 야경을 구경하는 동안 반짝이는 도시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시간이 넘쳐다 보면 이곳에서 타이베이의 낮과 밤, 두 가지 색다른 전경을 눈에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

타이완은 아름답고 순수한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가까운 거리로 부담없이 다녀올 수 있어 좋았고, 회원들과 함께 어울려 저절로 웃음 짓게 된 여행이었다. 우리의 3박 4일 여정을 편안하게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4 DAY

대만의 역사를 한눈에 중정기념당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우리의 마지막 코스는 타이완을 이해하는데 필수 여행지로 꼽히는 중정기념당이였다. 타이완의 초대 총통 장제스가 서거 후 1980년, 그를 기리기 위해 본명인 '중정'에서 이름을 따 설립한 곳이다. 장제스가 서거한 당시 나이를 상징하는 89개의 계단을 오르면 홀 중앙에 6.3m 규모의 대형 동상이 우뚝 서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양쪽 계단에는 2명의 근위병들이 매서운 눈으로 동상을 지키고 있고 매시 정각 교대식이 거행된다.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할 만큼 조경이 아름다워 산책하며 잠시 쉬어가기에 좋다.

회원들과 함께한 첫 해외여행지로서 타이완은 무척이나 만족스러웠다. 타이완은 아름답고 순수한 자연 풍광과 수도 타이베이의 화려함, 5000년의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무엇보다 가까운 거리로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절로 웃음 짓게 된 여행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여정을 편안하게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인생이 마음속 길 따라 달리는 것

더 클래식 500 이해웅 회원



위) 장엄하고 광활한 탁상대지가 멋졌던 미국 애리조나주 모뉴먼트밸리
아래)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 '신들의 정원' 전망대에서



올해로 여든둘. 더 클래식 500 이해웅 회원이 자동차 여행의 매력에 빠진 지 어언 20년, 미국 도로 곳곳에는 그의 바퀴 자국이 남았다. 20년 동안 10번, 갈 때마다 3,200~6,500km의 거리를 신나게 달렸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 발 도장을 찍고 있지만 그는 아직도 갈 곳이 너무나 많다.

글 이영진 에디터

내 나이가 어때서? 여행은 60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노년의 삶은 대체로 고요하고 평화롭다. 그저 소소하고 여유로운, 어쩌면 따분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어느 누가 자신의 70대를 상상하며 미국 자동차 여행을 꿈꿀 수 있을까. 그래서 더 클래식 500 이해웅 회원의 여행 이야기는 놀라움과 신선함의 연속이었다.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를, 환갑에 시작한 미국 자동차 여행. 그는 여든이 넘은 지금까지 핸들을 잡으며 낯선 땅과 사람, 상황들을 마주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가을, 미국 자동차 여행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담은 책 『미국의 길, 길따라』를 펴냈다.

“한 번, 두 번 다녀올 때마다 기록해놓았던 것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이 미국 자동차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에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저 기록용, 사전조사용으로 틈틈이 써온 글을 모은 것이라며 이 회원은 가만히 웃었다. “플로리다주의 올란드와 캘리포니아주의 경치가 최고로 좋았고, 빙하가 녹은 물이 호수를 이룬 장관은 꼭 한 번 보아야 한다”는 그에게서 청년 못지 않은 여행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엿보였다.

책 속에는 미국 요세미티 국립 바위 공원에서 바위에 걸려 타이어에 펑크가 났던 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리건주로 이동하는 언덕 도로를 달리는 중에 차체가 심하게 흔들려 진땀이 났던 일 등 아슬아슬 흥미진진한 에피소드가 가득하다. 때로는 육체적, 정신적 긴장감을 느꼈지만 언제 이런 다이내믹한 일을 경험해볼지 모른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 회원이었기에 가능했던 여행이었다. 더 멀리 달리고 더 많이 보

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 한 칸에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행복은 용기 내어 함께 누릴 줄 아는 사람의 몫

이해웅 회원은 지난 3월, 더 클래식 500에서 준비한 해외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더 클래식 500 회원들과 함께한 첫 해외 여행지는 대만. 돌아오는 길, 다 함께 다음 여행지를 꼽을 정도로 만족스러웠던 여행이었다.

“타이루거 협곡, 예류 지질공원 등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지형과 자연경관에 감탄했습니다. 또 장제스 총통의 증정기념당 등 대만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둘러보며 의미있는 시간도 가졌지요. 무엇보다 회원들과 공감대가 생기면서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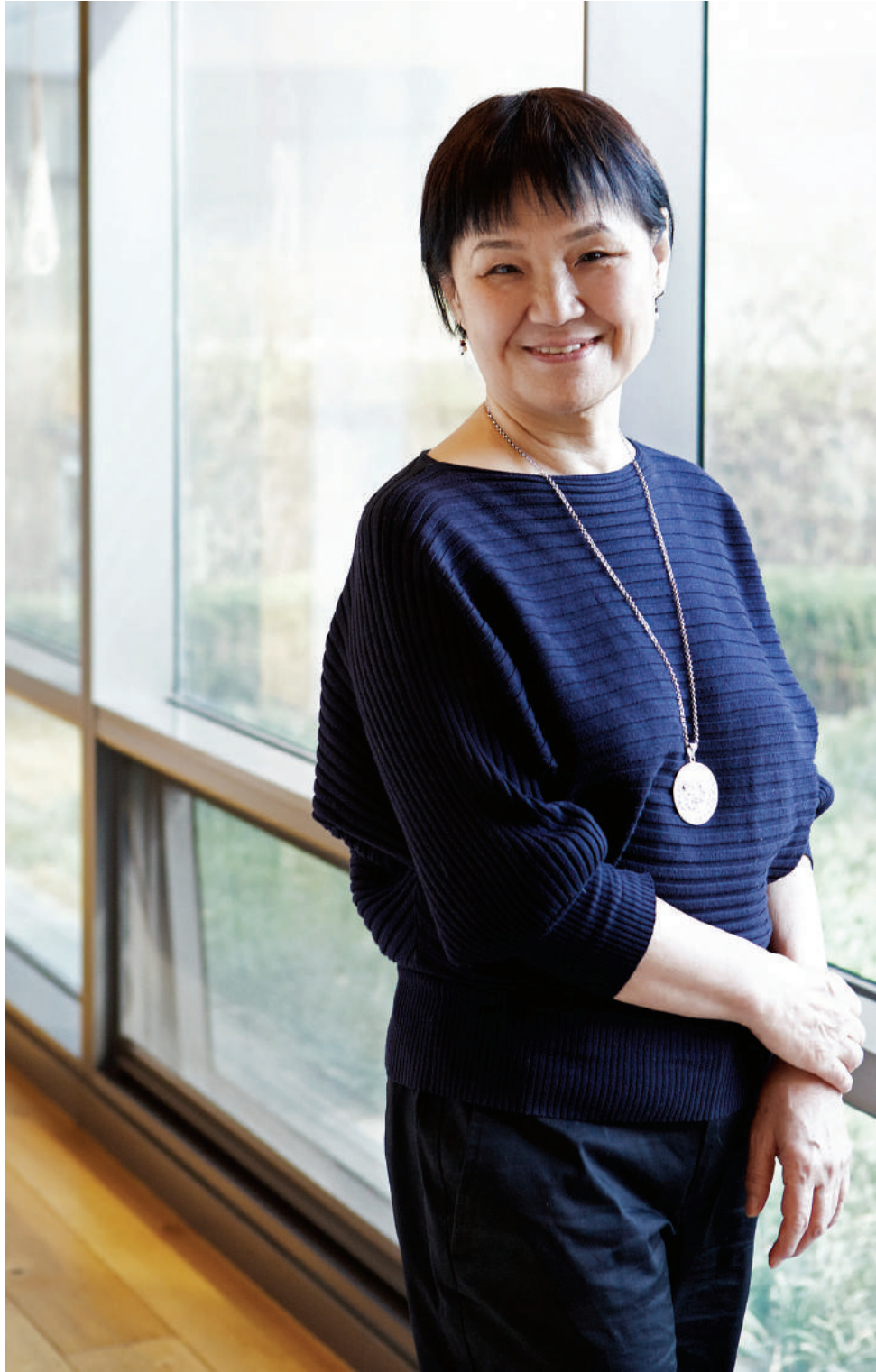
이 회원은 더 클래식 500과 여행이 그에게 건넨 수많은 선물들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더 클래식 500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활력을 얻고, 여행을 통해서 세계의 아름다운 풍광과 더 넓은 시야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을까. 더 많은 사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순간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이해웅 회원은 아프리카 남부, 남미 등 아직 못 가본 곳이 많으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세계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싶은 바람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주저하는 시니어들에게 한 가지 팁을 전했다.

“여행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가까운 곳부터 다니면 됩니다. 요즘은 경험 많은 여행사에서 선보이는 시니어 맞춤형 여행 상품도 많고요. 이번 대만 여행에서는 제가 막내였어요. 하하. 저보다 더 연로한 분들도 즐기는데, 준비만 차분히 한다면 떠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돌아오는 기쁨 최선을 다해 베푼 삶

더 클래식 500 조영숙 회원



조영숙 회원이 오랫동안 가슴 속에 품은 한 문장. “There are the things I have to do, I can do, and I want to do.” 젊은 시절은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보람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지금은 하루 하루가 소중하다. 더 클래식 500에서도 영어 수업으로 재능을 기부하고 가는 곳마다 진심을 담아 베풀며 따스한 온기를 선사하는 그녀의 이야기.

글 백수정 에디터

가르침이 주는 에너지와 행복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조영숙 회원은 하루를 꼬박 영어 선생님이로 산다. 오전에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15년이 넘도록 해오고 있는 ‘조영숙의 생활영어’ 클래스 강의를 한 후, 오후에는 더 클래식 500으로 돌아와 수준 별로 4개 반이나 되는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와 ‘왕초보 영어회화’ 클래스를 운영한다. 모든 수업을 마치고 나면 밤 아홉 시다. 일흔이 넘는 나이, 건강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 주변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은퇴 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봤어요. 젊은 시절, 미국에서 근무하며 어렵게 영어를 공부했던 경험이 누군가를 돕는데 쓰일 수 있겠구나 싶었죠. 이제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큰 에너지가 됩니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저는 언제까지나 수업을 계속하고 싶어요.”

영어를 배울 기회를 놓친 아쉬움, 외국에서 태어난 손주와 이야기를 나뉘보고 싶은 마음 등 더 클래식 500에서 영어회화를 공부하는 회원들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배움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잖아요. 공부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것은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목적이 있으면 힘들어도 천천히 나아갈 수 있어요. 회원들이 외국에 사는 손주들과 영어로 쓰인 엽서나 핸드폰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회화가 가능해져서 해외여행을 당당히 다녀오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죠.”

영어 수업을 통해 생겨나는 수입은 모두 더 클래식 500의 자원봉사단을 통해 건국대학교의 장학금으로 돌아간다.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자 조영숙 회원이 먼저 원했던 일이다. 영어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좋고, 그 대가로 학생들도 도울 수 있어 좋다는 조영숙 회원. 그녀만의 따뜻한 에너지가 주변을 환히 밝힌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선물

바쁜 와중에도 점심과 저녁 시간은 충분히 비워 둔다. 식사만큼은 꼭 남편인 허재일 회원과 함께하기 위해서다. “저희 부부는 젊을 땐 각자 바빠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우리한테는 서로가 가장 소중하죠. 매일매일, 삼시 세끼를 남편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어요.”

수업이 없는 날은 더 클래식 500의 다른 문화 강좌에도 활발히 참여한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일본어 강좌를, 토요일에는 기타와 그림 강좌를 듣는다. 물론 이 모든 것도 남편과 함께다. 그림과 기타는 시작한 지 꽤 되어서 실력도 수준급이다. 기타줄을 튕기며 7080 노래를 부르는 연주회와 그림 그림을 모아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전시회에서 생겨난 수입도 자원봉사단의 기금으로 보냈다. 요즘은 일본어로 된 일기도 공부하고 있다.

“더 클래식 500에 입주할 때 60이 조금 넘는 나이였어요. 남편이 입주를 강력히 원했고 저는 조금 꺼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편이 이곳의 삶을 나보다 더 즐기는 것이 나타나며, 이사 나갈까? 하고 놀립니다.”

2009년, 더 클래식 500의 오픈과 함께 입주했던 조영숙 회원은 9년 동안 이곳에서 사귀 직원들, 이웃들, 친구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직원들의 결혼이나 출산이 마치 내 일처럼 기쁘고, 이웃들끼리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자연스럽다. 매주 월요일에는 회원들과 골프를 치러 나가기도. 이제는 서로의 표정만 보아도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어렸을 땐 몰랐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인 것. ‘The present is a present.’ 내일 걱정을 오늘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어제 일을 떠올린다고 바뀌는 것도 없어요. 저는 날마다 오늘 하루를 가장 재미있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계산된 '가장 미국적인' 스타일링,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브룩스 브라더스'의 코트를 입었다. 1818년 창립한 브룩스 브라더스는 미국 남성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미국의 역대 전임 대통령 43인 중 39명이 이 브랜드 옷을 입었으며 미국식 '색 슈트 (sack suit)'를 처음 선보인 곳이기도 하다. 색 슈트란 마치 자루 (sack)를 씌워놓은 듯 여유 있는 정장을 칭하는 말로 미국식 스타일의 원조다. '미국'을 강조하는 그가 의상 역시 가장 미국적인 브랜드를 고른 셈이다.

취임식에서 브룩스 브라더스를 입긴 했지만 사실 그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브리오니'라고 한다.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가 입는 그 섹시한 슈트가 바로 브리오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슈트는 전혀 본드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패션 모델 출신의 아내와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딸을 둔 그가 왜 이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일까?

그는 한 벌에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브리오니 고급 정장을 일부러 헐렁하게, 심지어는 구깃구깃하게 연출한다. 앞섶을 열어젖힌 채로 유세에 나섰다 취임 선서를 했으며 집무실을 확보했다. 이는 미국 중산층이 가장 풍요로웠던 1980년대 월스트리트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의 거침없고 반항적인 이미지를 배가시켰다. 트럼프가 어설픈게 눌러 쓴 빨간 야구 모자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하게'라는 슬로건 새긴 야구모자는 저소득의 백인 노동자들에게 "내가 당신 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모자는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트럼프 팬덤의 상징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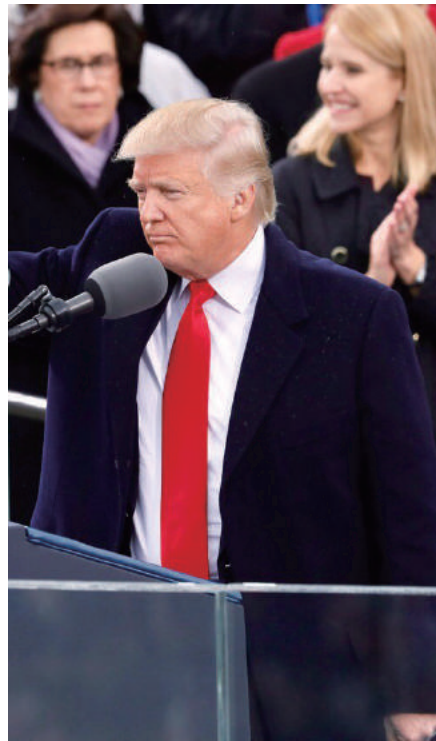
트럼프는 넥타이 매는 방식도 유별나다. 넥타이를 맬 때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인 벨트 버클보다 항상 주먹 하나쯤 더 내려와 있다. 오히려 앉아있을 때 양복 단추를 잠그는 일이 많아서 재킷 아래로 삐죽 얼굴을 내민 넥타이가 자주 포착되곤 한다. 그 와중에도 보수층을 집결시키기 위해 꼭 끼는 넥타이는 반드시 챙겼다. 게다가 성조기가 떠오르는 블루와 레드 컬러 넥타이를 번갈아 착용해 보는 이로 하여금 애국심을 느끼도록 유도했다.

당신의 패션,
당신의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2017년, 버락 오바마가 8년 간의 백악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수장이 되었다. 정치적 노선은 물론 닮은 점이라곤 털끝만큼도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에게도 공통점이 존재한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옷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글 변희원 <<조선일보>> 기자

What Your Fashion Say About Your Message



Donald J. Trump twitter



by Scout Tufankjian, Flickr

유연한 메시지를 스타일링,
버락 오바마

몸에 착 달라붙는 정장을 입고 때론 소매도 걷어 올리던 버락 오바마는 도널드 트럼프와 대조가 된다. 그는 언제나 어두운 색의 클래식한 투버튼 슈트를 몸에 꼭 맞게 입었다. 큰 키와 날씬한 몸매를 부각시키면서 청년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오바마는 패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종종 패션 전문가들의 좋은 코멘트를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의 패션은 쿨하다. 제즈 트럼펫 연주자 마일즈 데이비스나 롤링 스톤 믹 재거의 쿨함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오바마의 임기 중 실리콘 밸리가 활력을 되찾고 스타트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014년에 IT업계에서 유행하던 놈코어 (normcore), '노멀'과 '하드코어'의 합성어로 평범함을 추구하는 패션은 오바마와도 딱 맞아떨어졌다. 파격적인 패션은 가급적 피하고 청바지에 피케 셔츠, 운동화처럼 기본 아이템을 활용해 튀지 않고 평범하게 입는 오바마의 차림새는 놈코어 유행에 전혀 뒤쳐져 보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트렌디한 대통령으로 비추어졌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연설할 때 노트에 셔츠 단추를 하나 풀고, 또 양쪽 소매를 걷어붙였다. 연설 도중 손동작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차림새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블루와 레드 컬러 넥타이를 자주 땀지만, 둘 중 그가 더 애용했던 것을 꼽자면 블루다. G20 정상회담으로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하늘색에 가까운 옅은 파란색 넥타이를 땀다. 오바마가 파란색 넥타이를 즐겨 땀던 이유는 2008년 금융 위기 직후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줘야 했고, 파란색은 희망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오바마의 옷이 아니라 젊고 건강한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다. 브룩스 브라더스 정장만 입은 게 아니라 청바지를 입거나 나이키 운동화를 신는 모습도 종종 노출한 덕분이다. 젊어 보이기 위해서 다리가 저릴 정도로 바지통을 줄이거나 요란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저금리 시대, 시니어 자산 관리 비법

은행 금리 1%대 시대, 노후 자산 관리의 정답은 무엇일까. 미래에셋대우 건대역 WM 최명엽 선임매니저를 통해 저금리 시대를 사는 시니어의 자산 관리 비법을 알아본다.



더 클래식 500 고객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관리와 배려’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입주회원의 평균연령은 77세이지만 30~40대보다 더 활발한 활동과 자기관리로 건강하고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우리 지점에서 더 클래식 500 봉사단과 함께 장애인 복지 시설에 봉사를 간 적이 있다. 모든 봉사단원이 장애우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로 어떤 금융 상담을 하는지 궁금하다

일반적인 투자상담뿐만 아니라 세무, 부동산컨설팅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의뢰 받고 있다. 특히, 세금과 부동산관련 상담은 본사의 VIP 전담 회계사나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의뢰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아무래도 고객들의 연령층이 높다 보니 상속·증여에 대한 상담도 많은 편이다.

고객들이 선호하는 상속 및 증여 수단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상속 증여 수단 중 부동산을 가장 많이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 현금 및 예금, 보험, 주식, 펀드, 채권 등 순으로 꼽았다. 하지만 해마다 세법이 바뀌고, 자산 규모에 따라 효과적인 수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상담 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추천해드린다.

일반적으로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반드시 증여가 선행되어야 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고액자산가라면 주식 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실제로 최근 주식 증여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주식은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래세가 발생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도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매도 시에도 부동산처럼 양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변동성이 크다 보니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 경제 동향에 발맞추어 추천하는 금융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채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는 국가 신용도에 대한 투자이다. 그중에서도 브라질 국채를 꼽는다. 국내 예금 금리보다 7~8배 높은 이자를 6개월마다 꼬박 꼬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의 현금 유동성에도 좋은 상품이다. 연 10%대의 고금리와 한국과 브라질 조세협정으로 비과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원 부국인 브라질 채권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미래에셋대우를 포함한 국내 8대 증권사의 올해 브라질 국채 판매는 1조 원을 넘었다.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다. 리스크가 있는 투자보다 안정적인 운용으로 자산가치를 유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추천한 국채도 좋고, 글로벌 채권에 분산 투자하거나 배당주에 투자하는 자산 배분 펀드를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팁을 꼽는다면?

해가 바뀌면 세법 또한 바뀐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문의가 많다. 달라진 세법을 아는 것만 해도 자산 관리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 최고 세율이 오른다. 2017년부터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 기존 38%에서 40%로 2% 증가한다. 지방소

득세를 포함하면 44%의 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는 축소된다.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2017년부터는 7%로 축소된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금액 계산 방식도 과거 상속 주택 가액의 80%를 동거주택 상속 공제되던 것을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공제 한도는 그대로 5억 원으로 유지된다.

셋째,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된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한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시행령 공포 및 예정일인 2017년 2월 3일 이후에는 과거처럼 거액의 비과세가 어려워진다. 일시납 보험은 계약기간 10년 이상일 때 1인당 2억 원이던 한도가 1억 원으로 낮아지고, 월납 보험은 기존에는 한도가 없었으나 월 1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단, 종신형 연금은 현행대로 비과세를 유지한다.

이외에도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취득일로 조정되어 세금부담이 경감되고, 주택 임대소득 세제 지원 적용 기간이 2년 더 연장해 2019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문의 미래에셋대우 건대역 WM02-454-0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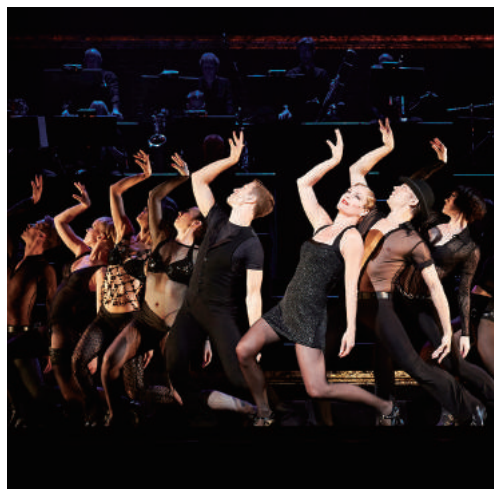
TIP 안정적 자산운용 추천 상품

글로벌 인컴펀드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펀드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펀드

해외 주식투자

미국 상장 오메가헬스케어(OHI), 노인요양, 간호시설 949개에 투자한 미국 회사. 총 수익의 85%가 임대수익으로 배당은 분기마다 지급, 2013년 이후 6%대의 높은 배당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짙은 어둠 속 매혹적인 이야기와 관능적인 몸짓 뮤지컬 <시카고>

법과 윤리가 무너진 시대, 재즈와 술 그리고 욕망과 거짓이 넘쳐나던 1920년대 시카고를 배경으로 두 여자가 무대에 선다. 각각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여동생을 죽인 죄, 배신한 정부를 죽인 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다.

글 백수정 에디터

CHICAGO

전세계에 두터운 팬 층을 보유한 뮤지컬 <시카고>는 한국에서도 12회째 공연되는 만큼 그 인기가 대단하다. 하지만 이번 공연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오리지널 팀이 우리 나라를 찾았기 때문이다. 브로드웨이의 감동, 오리지널 팀만의 강렬한 무대를 만나보자.

시대를 관통하는 서늘한 메시지

두 여죄수는 세상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 위해 서로 다룬다. 인기를 독차지해 매스컴을 장식하면 무죄로 석방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이들은 백마 탄 왕자나 정의의 사도 같은 고리타분한 구원자는 바라지도 않을뿐더러, 나타나지도 않는다. 다만 옆치락뒤치락하며 변호사를 구워삶고 언론을 속일 뿐이다. 사람을 죽이고도 스타가 되길 꿈꾸는 인물들을 그려낸 <시카고>를 보고 있노라면 언론이 작동하는 방식, 돈 앞에서 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이 지금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인다. 그래서 풍자는 더욱 유쾌하다. 날카로운 시선과 위트로 무장한 <시카고>는 이처럼 100년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텅 빈 무대를 채우는 음악과 춤의 향연

뮤지컬이라면 기대할 법한 화려한 무대장치와 감미로운 노래가 <시카고>에는 없다. 대신 검고 텅 빈 무대를 배우들의 파워풀한 에너지와 재즈 선율로 채워나간다. 심플하면서도 농염하고, 부드러운 것도 절도 있는 안무는 이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으면 섭섭하다. 재즈와 안무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무대를 빈틈없이 채워나간다. 보통의 공연에서는 오케스트라가 무대 아래에 위치하지만 <시카고>는 재즈 빅밴드가 무대 중앙에 자리한다. 튜바, 트럼펫 등의 악기로 구성된 14인조 빅밴드는 완벽하게 작품에 어우러지며 제2의 배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지휘자가 배우들과 익살맞게 대사를 주고 받기도 하는 등 밴드의 유쾌한 애드리브는 <시카고>만의 즐거움이다.



INFORMATION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기간	2017년 5월 27일 ~ 7월 23일
시간	화요일~금요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2시, 오후 6시 30분
러닝타임	155분 (인터미션 20분 포함)
문의	1544-1591

프라이빗한
침실에서의 하룻밤

최고의 휴식이자 치유인 숙면은
다음 날 아침 비즈니스맨의
효율을 높인다. 거실에서
분리되어 아늑하게 느껴지는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스위트룸의 침실. 포근한 침구가
구비된 이곳에서 편안한 숙면을
경험해보자. 한결 가벼워진 몸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봄날의 오후 나만을 위한 시간

최상의 서비스와 여유로운 휴식이 있는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이곳에서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낸
비즈니스맨의 어느 봄날.

스타일링 황남주(뷰 로드 플로 디아)





SCENE 2 #

내 집 같은 편안함, 애프터눈 티타임

차 한잔을 마시는 시간이야말로 바빠 내쉬던 숨을 가만히 고르는 시간이다. 영국 귀족들의 전통에서 시작된 애프터눈 티타임으로 즐기는 품격 있는 봄날의 오후, 원목, 친환경 자재의 가구와 은은한 실내조명이 편안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펜타즈 호텔 스위트룸에서 차 한잔의 여유를 만끽해보자.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주방은 와인셀러, 오븐, 조리도구 등을 구비하고 있어 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다.

SCENE 3 #

호텔에서 읽는 책 한 권의 휴식

여가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펜타즈 호텔의 스위트룸은 독서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다. 격조 있는 유러피안 스타일의 서재공간에서 평소 읽지 못했던 책 한 권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 창밖으로 보이는 아차산과 한강, 서울숲과 건국대학교 캠퍼스 내의 일감호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은 덤이다. 아름다운 도시의 조망을 즐기며 무료 와이파이로 느긋하게 인터넷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럭셔리 레지던셜 호텔의 중심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HOMEPAGE RENEWAL EVENT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홈페이지 새 단장을 기념하여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2017년 4월 한 달간 슈퍼리어 스위트룸과 스위트룸 이용 시 펜타즈 호텔 홈페이지 및 전화예약, 방문예약 등 펜타즈 호텔의 공식 채널을 통해 예약하면 과일 생크림 케이크와 아메리카노, 웰컴 와인, 호텔 조식 등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선물을 제공한다. 더불어 리더스 마스크팩과 테라피어메니티 세트, 여행용 위생 키트 등 기념품도 증정한다. 펜타즈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 또한 무료 이용 가능하며, 스파 50% 할인권 등 총 9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객실 문의 02-2218-5777**

SUPERIOR SPECIAL EVENT

주중 299,000원, 주말 380,000원 (성인 3인 기준)

SUITE SPECIAL EVENT

주중 279,000원, 주말 340,000원 (성인 2인 기준)

2012년 5월 오픈한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서울 광진구의 랜드마크로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럭셔리 호텔이다. 2017년에는 '트립어드바이저' 선정 상위 1% 호텔, '호텔스컴바인 어워드' 최우수 호텔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4년도에는 '가족형 호텔 부문' 1위를 차지한 것에 이어 4년 연속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최우수 호텔의 영예를 안았다. 또 '부킹닷컴 게스트 리뷰 어워드'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이렇듯 럭셔리 레지던셜 호텔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펜타즈 호텔은 여타 호텔에 비해 넓고 쾌적한 객실과 품격 있는 서비스, 다양한 부대시설을 자랑한다. 객실의 경우 125.62㎡의 넓고 안락한 슈퍼리어 스위트, 스위트룸 비롯 주니어 스위트, 디럭스까지 총 4종류의 룸을 보유하고 있다. 부대 시설로는 온천 성분이 함유된 최고급 '스파',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메디컬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 '야외 수영장'이 있고, 그 외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라구뜨'와 와인 레스토랑 앤 바 '라비앙로즈', 컨템포러리 카페 '마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파릇 파릇 봄으로 물든 식탁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라구뜨 프리미엄 메뉴

새싹이 하나 둘씩 고개를 내밀더니
어느새 초록이 풍성해지며 봄이
무르익는다. 싱그러운 봄 제철 식재료는
자연이 주는 큰 선물. '자연'이라는
테마 속에서 신선한 식자재, 오가닉한
조리법으로 언제나 건강한 음식을
선보이는 라구뜨 뷔페가 봄 특선 메뉴를
준비했다. 파릇파릇 싱그러운 봄으로
물든 라구뜨의 식탁으로 향해보자.

프리카 리소토

식이섬유가 가득한
슈퍼곡물 프리카를 봄
제철 나물과 함께 버터에
살짝 볶아 리소토로
만들었다. 따끈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향긋한 봄 내음이 입안
가득 퍼진다.

세이지 향의 방울 양배추와 단호박 구이

알싸한 향이 매력적인
세이지를 방울 양배추,
단호박과 함께 오븐에
구워냈다. 자그마한
야채들의 모양새가
양중맛고, 달콤한 메이플
시럽을 곁들여 야채를
꺼리는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다.

베이컨 카레 콜리플라워

비타민이 가득한
콜리플라워를 강황이
듬뿍 든 카레와 함께
노릇하게 굽고 베이컨을
얹었다. 짹짹하고 고소한
풍미가 봄철 입맛을
사로잡는다.

HOT



우영 걸절이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우영을 얇게
썰어 발효청으로 양념하고
사과와 제철 채소에
곁들여 냈다. 아삭아삭,
새콤달콤한 감칠맛에 입맛이
되살아난다.

소라 잣즙채

타우린이 풍부한 소라를
배와 오렌지, 오이와 함께
버무리고 고소한 잣소스로
맛을 냈다. 꼬들꼬들한
소라와 상큼한 과일의
절묘한 궁합이 나른한
봄철에 생기를 되찾아준다.

죽순 냉잡채

제철을 맞은 싱싱한
담양 죽순을 껍질과
함께 냉잡채로 무쳐냈다.
새콤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 그윽한 향이 잘
어울린다.

당귀잎 장아찌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한약재로도 쓰이는
당귀는 본연의 맛과 향이
뛰어나다. 발효청으로 짜지
않게 담은 향긋한 장아찌가
일품이다.

KOREAN



**주꾸미 아에모노,
바지락 스노모노**

곱게 갈아낸 무와
주꾸미를 버무려
아에모노를 만들고
바지락을 방울 토마토와
미역, 절인 오이에 무쳐
스노모노를 차렸다. 일식
무침요리가 정갈한 맛을
음미하기에 제격이다.

**두릅 초밥과
생선 초밥**

참치와 광어, 연어 등
신선한 생선 초밥과
함께 데친 두릅을 얹은
초밥을 준비했다. 향긋한
두릅 향과 보드라운
식감이 초밥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JAPANESE



**봄나물과
주꾸미 샐러드**

주꾸미를 살짝 데친 후 민들레의 어린잎과 여러 봄나물을 버무려 샐러드로 내놓았다. 주꾸미는 타우린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레몬 드레싱으로 상큼함을 더했다.

**야생 버섯과
펜넬 샐러드**

귀한 야생버섯을 펜넬과 함께 얇게 슬라이스한 후 화이트 와인 비네거 드레싱으로 맛을 냈다. 버섯과 펜넬의 깊은 풍미에 화이트 와인 비네거 드레싱이 어우러져 깔끔하고 고급스럽다.

**흑미와
견과류 샐러드**

안토시아닌과 무기질이 풍부한 흑미 위에 구운 호두, 잘게 썬 셀러리와 사과를 얹어서 든든한 샐러드로 조리해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오일과 그라나 파다노 치즈 가루를 올려 더 풍성한 맛을 완성했다.



COLD

**블루베리
요구르트 케이크**

항산화질이 풍부하고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블루베리를 케이크와 함께 맛볼 수 있다. 크림치즈와 요구르트, 생크림으로 만든 케이크는 촉촉하고 많이 달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기기에 좋다.

**블루베리 · 썩
마카롱**

아몬드 분말과 슈거 파우더를 섞어 만든 반죽에 달콤한 블루베리 필링과 향긋한 썩 필링을 채워 구워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에 우아한 단맛이 잘 어우러진다.

문의 02-2218-5770

BAKERY



봄맞이 건강 관리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이
건강한 몸을 향한 심기일전에 불을 지핀다.
세계적인 장비를 갖춘 펜타즈 호텔 피트니스에서
개인별 맞춤 운동과 더불어 GX 프로그램으로
활력있는 봄을 맞이해보자.



넓은 공간, 세계적 장비, 개인별 맞춤 서비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체력 단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의 피트니스는 회원들의 습관, 비만, 체력, 노화 검사를 통해 상담
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자동 이력 관
리 시스템을 통해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개별 모니터링하는 데 쓰
인다. 섬세하고 친절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는 주치의처럼 든든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530m² 규모의 넓은 Gym은 신체는
물론 마음까지 탁 트이게 해, 여유로운 마음으로 체력을 단련하
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여기에 세계적인 장비인 Technogym
과 유능한 트레이너는 회원들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건강한 삶
을 제시해줄 것이다.

삶에 활력을 더하는 GX 프로그램

펜타즈 호텔 피트니스의 또 하나의 자랑은
바로 풍성한 GX 프로그램이다.
숙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GX 프로그램은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한다.

태극권

중국의 권법 중 하나로 낙상
예방과,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슬링

천장에 달려 흔들리는
줄(슬링)을 이용해 운동하며
관절 부위를 강화시킨다.

댄스핏

춤 이용한 에어로빅
운동으로 운동량이 많고
지구력 향상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H코어

매트에서 몸의 중심부인
복부와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근력운동이다.

H요가

명상과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형태로 기초 체력과
근력, 유연성을 기르기에
좋으며, 스트레스와 피로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ABT

복부와 척추의 힘으로
엉덩이, 다리로 연결되는
근육을 자극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하모니 스트레칭

운동에 힐링 개념이 더해진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이
증진된다.

키큰코리아

발차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하지 강화와
힙업에도 좋다.

바디업

멋진 몸매를 만들어 주는 전신
근력 운동으로 덤벨, 바벨 등
소도구를 이용한다.

젠링힐링

인체 곡선에 맞게 제작된
'젠링'이라는 소도구로 하는
스트레칭과 마사지이다.

TBC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결합된 형태로 건강한 몸매
유지에 도움이 된다.

필라테스

특수 고안된 필라테스 기구를
통해 몸의 중심인 코어와
심부근을 강화시킨다.

스트레칭

신체 부위의 근육이나 인대
등을 늘여주는 운동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피트니스 이용 안내

피트니스 회원만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

- 스파(온천 성분 함유 천연 암반수)
- 실내 골프장(타석별 최첨단 스윙 분석 시스템 설치)
- 야외 수영장
- SWISPA(스킨 케어 숄) 할인
- 식·음료(라구뜨, 라비앙로즈, 마실 등) 10~20% 할인
- 시설 내 문화 공간(도서관, 마실, A/V룸 등) 무료 이용 및 강습, 강좌 설비
- 파주 KU Golf Pavilion C.C 할인(리무진 셔틀버스 운행)

운영 시간

월~토요일	5:30~22:00
일·공휴일	9:00~21:00
정기휴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회원 가입 (VAT포함가)

개인 회원	보증금	3,800만 원
	연회비(1인)	2,829,860원
	보증금 1천만 원부터 자율제 (연회비 차등)	

부부 회원	보증금	5,960만 원
	연회비(1인)	2,829,860원
	보증금 1천만 원부터 자율제 (연회비 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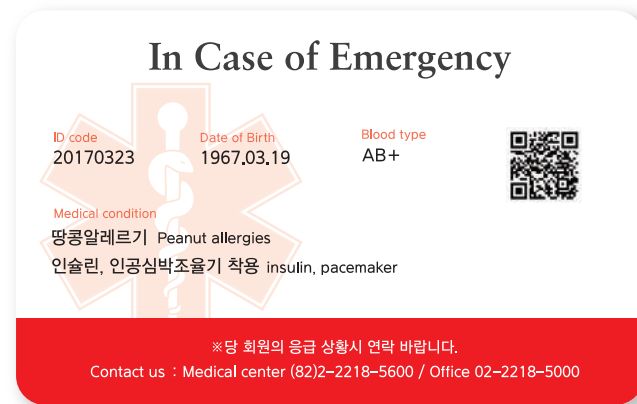
법인 2인	보증금	8,000만 원
	연회비(1인)	2,829,860원
	보증금 2천만 원부터 자율제 (연회비 차등) 무기명, 기명	

상담 및 문의 02-2218-5800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더 높은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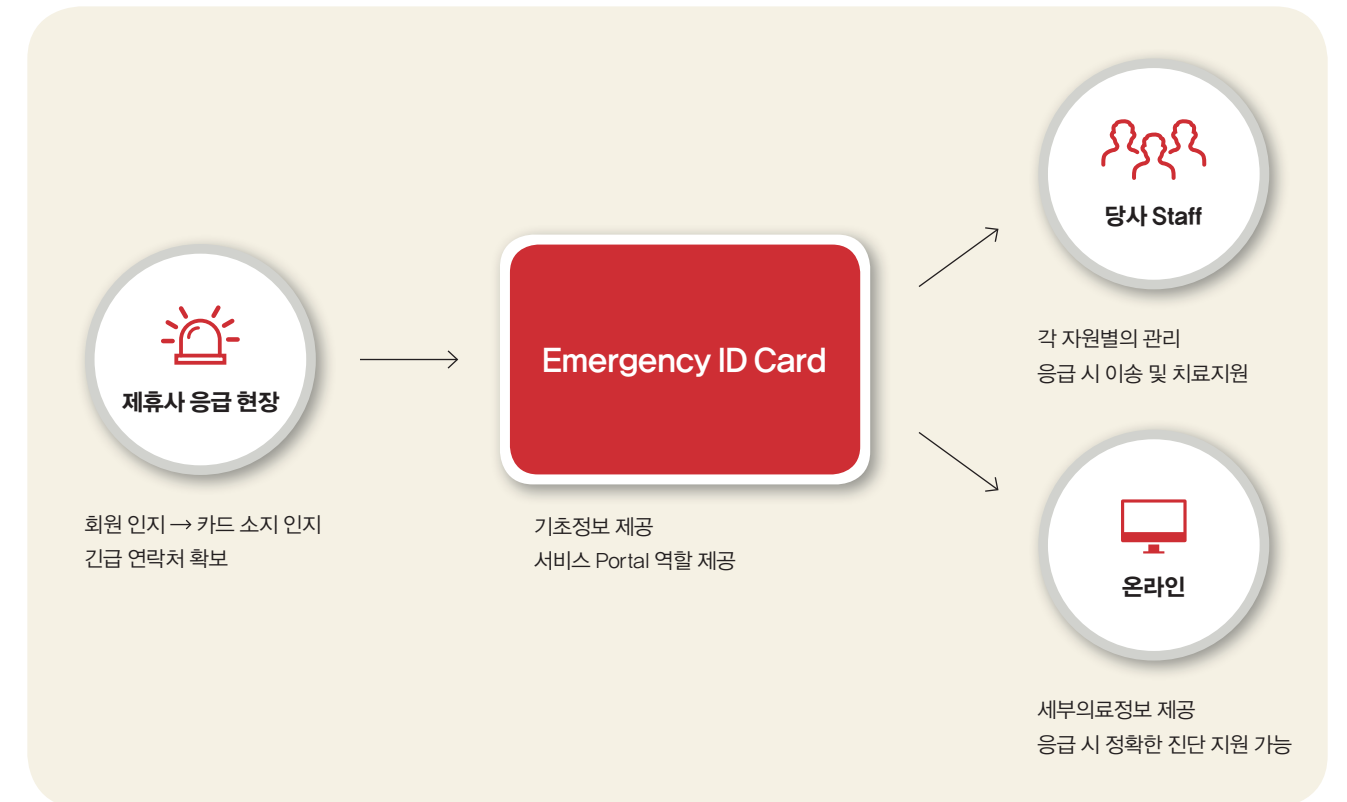
Emergency ID Card

더 클래식 500의 서비스가 점점 더 스마트해진다. 2016년 LG전자, KAIST와 MOU를 맺은 더 클래식 500은 '스마트 시니어 케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5월부터는 'Emergency ID Card'(이하 에머전시 카드)를 도입,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더 클래식 500은 레저, 여행 등 활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회원들이 외부에서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처치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에머전시 카드를 도입한다. 에머전시 카드에는 인적 정보와 긴급 연락처, 특정 알레르기, 혈액형, 복용 약물 등을 기재하여 의식불명의 응급 상황에서 처치자가 원인을 재빨리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면 해당 카드에 내장된 QR코드로 더 많은 의료 정보를 인지할 수 있어 회원의 증상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에머전시 카드가 유용한 정보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메디컬 핫라인' 구축

에머전시 카드는 입주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과 골프장, 여행사 등에 우선 적용된다. 현재 주요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추진 중이며, 협약 후에는 에머전시 카드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진다. 해당 기업에서는 더 클래식 500 회원의 방문을 인지하고, 유사시에 대비한다. '메디컬 핫라인'이 구축되어 회원들은 더 클래식 500 라이프케어 팀의 인프라를 외부에서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머전시 카드 소지자는 응급 상황 발생 시 불특정 응급 처치자,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까지

에머전시 카드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행과 레저, 호텔, 생활 등의 우대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협력기업이 제공하는 의전과 할인, 우선 예약 등의 구성으로 더 클래식 500 회원들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력기업 입장에서는 홍보 및 판촉 채널을 획득할 수 있어 'WIN-WIN'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협의되고 있는 사업체로는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롯데관광, 모두투어, 하나투어, 제주 시에스 호텔, 전국 골프장 등이다. 점진적으로 해당 업무 협력 기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꿈꾸는 더 클래식 500

더 클래식 500은 지난 2009년 오픈 이래 'Private Senior Society'라는 모토로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며, 더욱 건강하고 품격 있는 시니어 주거 서비스를 만들었다. 현재는 정보 통신의 발전에 따른 예방의학과 정밀의학과 의 접목으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에머전시 카드의 표면적 인 모습은 단순하고 간결한 정보 매개체로 보이지만, 그 속에 담고자 하는 더 클래식 500의 노력은 입주회원들이 언제, 어딜 방문하더라도 품격 있는 대접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길 바라는 마음이다.



헬스케어센터 CT검사실



헬스케어센터 로비

더 클래식 500 명품 건강검진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다

건국대학교병원 헬스케어센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까지 관리하고, 보다 더 안락하고 품격 있는 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대, 건국대학교병원 헬스케어센터가 그 해답을 제시했다.

100세 시대 파트너, 헬스케어센터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더 클래식 500 시니어 타운 입주 회원들은 건국대학교병원 헬스케어센터에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까지 관리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명품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생활환경과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건강하게 산 기간인 '건강 수명'이다. 헬스케어센터는 맞춤형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의 경우 경과를 관찰해 악화를 막는 것은 물론, 의료정보 및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100세 시대에 걸맞는 삶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문 코디네이터와 1:1 상담

최첨단 의료 장비와 스타급 의료진



고영초 교수(신경외과)



심찬섭 교수(소화기 질환)

각 검사실에는 분야별 전문의가 항시 상주하여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스타급 의료진이 전담 주치의로 배정되어 전문적인 상담을 해 주고, 필요한 경우 당일 바로 본격적인 진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된다. 양정현 의료원장(유방암), 한설희 병원장(치매), 강순범 교수(부인암), 김호연 교수(류마티스), 심찬섭 교수(소화기 질환), 송명근 교수(심장혈관 질환), 고영초 교수(뇌종양), 황대용 교수(대장암) 등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의 진료가 이루어진다. 더불어 CT, MRI, PET 등의 각종 최첨단 장비가 구비되어 주요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을 보다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진단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다양한 개인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성별, 연령, 관심분야에 따라 구성된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 코디네이터와 1:1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추천해준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등 한국인이 잘 걸리는 성인병과 암을 조기 진단하는 종합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중장년층을 위해 암과 심혈관계 질환에 특화된 정밀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다. 특히 스타급 정밀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등 주요 10대 암을 진단하는 것은 물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들도 확인해 준다.

특급 호텔을 넘어선 환경과 편리한 교통



도심 속 더 클래식 500 전경

VIP 병동이나 펜타즈 호텔에 투숙하며 전담 간호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스파 등 다양한 호텔급 휴식 공간도 이용 가능하다. 센터는 약 700평 규모로 곳곳에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진열되어 있어 세련된 분위기를 자랑한다. VIP 대기실, 검진공간과 상담공간의 분리 등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한 안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2호선, 7호선과 바로 연결되어 교통 또한 편리하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0점을 획득해, 다른 주요 종합병원 건강검진 만족도를 크게 상회했다. S은행과 W은행 임직원 만족도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문의 1588-1533



김인우 사회복지사

우수자원봉사자 광진구청장 감사패 수여

지난 12월 22일, 회원관리팀의 김인우 사회복지사가 김금자 후원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의 추천으로 광진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꾸준한 선행을 실천한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은 것이기도 해 그 의미가 더욱 뜻 깊다. 살가운 얼굴로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는 김인우 사회복지사에게 수상소감과 더불어 더 클래식 500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백수정 에디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회원님들께
사회복지서비스와
문화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위) 더 클래식 500 '바르게 걷기' How W 프로그램
아래) 이웃돕기우수후원자 감사패전달식



소감과 함께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을 소개해주세요.

제가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이였기에 받을 수 있었던 감사패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단에는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자 좋은 뜻으로 모이신 많은 회원님들이 계세요. 저는 실무자로서 그 뜻이 올바르게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렸을 뿐인데 감사패까지 받게 되어 과분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겠습니다.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은 사회 환원에 대한 회원님들의 마음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고자 2011년 만들어졌습니다. 헛수로 벌써 7년째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아이들을 위해 쌀을 기부하거나, 수술비를 후원하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학업에 보탬이 되는 일등을 합니다.

현재 회원관리팀에서 맡고 계신
일은 무엇인가요?

자원봉사단을 꾸려나가는 동시에 회원님들께 사회복지 서비스와 문화·여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생의 주기에서 마주하게 되는 몸과 마음의 문제들, 심리적인 상실감이나 예전 같지 않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행하고 또 개발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또 여러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서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또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를 졸업하여서 노인복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회원님들께서 쉽게 운동하실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저희가 고민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에 만족하실 때 보람을 느끼죠. 더 클래식 500 안에서 이뤄지는 문화와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시기도 하고, 활기를 띠시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도 제가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면 그 감사한 마음을 말로 다 할 수 없죠. 개인적으로는 회원님들께서 삶을 통해 얻으신 지혜를 곁에서 지내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신 분들과 함께 생활하며 때론 삶을 간접 경험하고, 그 값진 교훈을 미리 얻을 수 있거든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시는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

2017. 03. 01 — 2017. 05. 31

● 신규개설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장소	강사명	수강료
음악					
신나는 금요일 노래교실	금	10:30 ~ 11:30	4층 다목적실2	황선정	무료
토요 남성 통기타	토	14:00 ~ 15:30	4층 다목적실2	안승제	5만 원(1개월)
토요 여성 통기타	토	15:40 ~ 17:10	4층 다목적실2	안승제	5만 원(1개월)
1:1 개인 통기타 교습	개별	시간조정	4층 다목적실2	안승제	4만 원(1회)
건강					
굿모닝 아침체조 ●	월 ~ 금	07:30 ~ 07:50	4층 다목적실1	이혜숙	무료
탁구교실(1:1 개인교습)	월, 수	13:00 ~ 15:30(10분)	B동 4층 GX룸	김연경	5만 원(1개월)
검도	화, 목	19:00 ~ 21:00	4층 다목적실1	이봉주 회원(재능기부)	무료
예술치유반	수	14:30 ~ 15:20	4층 다목적실2	황인옥	무료(재료비 별도)
예술치유 미술증점반	목	14:30 ~ 16:30	4층 다목적실3	황인옥	8만 원(재료비 별도/월)
미술					
그림교실(서양화)	토	19:00 ~ 21:00	A동 7층 다알리아2	이은규	6만 원(1개월)
도예반('마음을 빛다') ●	월	15:00 ~ 17:00	A동 7층 다알리아2	이재철	12만 원(재료비 포함/월)
댄스					
왕초보 라틴(차차차)	월	11:00 ~ 11:50	4층 다목적실1	김복옥	5만 원(1개월)
왕초보 모던(왈츠)	목	11:00 ~ 11:50	4층 다목적실1	진보성	5만 원(1개월)
소셜 기초	수	16:00 ~ 16:50	4층 다목적실1	박강현	5만 원(1개월)
소셜 초급	수	17:00 ~ 17:50	4층 다목적실1	박강현	5만 원(1개월)
발레 기초반	목	16:00 ~ 17:30	4층 다목적실1	최성이 회원	6만 원(1개월)
자이브 왕초보반	월	11:00 ~ 11:50	4층 다목적실1	김복옥	5만 원(1개월)
한국무용	목	15:00 ~ 15:50	4층 다목적실1	김운자	5만 원(1개월)
컴퓨터 IT					
컴퓨터 왕기초반	화, 목	09:00 ~ 10:20	A동 7층 프리지아2	장정현	15만 원(3개월)
참 쉬운 실생활 컴퓨터(활용반)	화, 목	10:30 ~ 11:50	A동 7층 프리지아2	장정현	15만 원(3개월)
실생활 스마트폰	화	10:00 ~ 11:30	4층 다목적실2	조만하	무료
어학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A)	화, 목	14:30 ~ 15:20	A동 7층 다알리아2	조영숙 회원(재능기부)	6만 원(3개월)
왕초보 영어회화	화, 목	16:00 ~ 16:50	A동 7층 다알리아2	조영숙 회원	6만 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B)	화, 목	17:30 ~ 18:20	A동 7층 다알리아2	조영숙 회원	6만 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C)	화, 목	20:00 ~ 21:00	4층 다목적실3	조영숙 회원	6만 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일본어회화(초급)	월, 수	19:00 ~ 20:00	4층 다목적실3	고영자 회원(재능기부)	6만 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일본어회화(중급)	월, 수	10:00 ~ 11:30	4층 다목적실3	고영자 회원	6만 원(3개월)

동호회

더 클래식 500 하모니 합창단

전문가의 지도하에
아름다운 화음을 자아내고
공연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표현하는 동호회

일시 월 15:50 ~ 17:20
회비 연 24만 원

댄스스포츠

왈츠, 라틴, 자이브,
기본 스텝 등으로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

일시 월·화·목·금
09:00 ~ 09:50
(주 4회)
회비 연 35만 원

숙녀회

골프를 좋아하는
여성 회원만을 위한 동호회

일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혹서기·혹한기 휴회
회비 연 10만 원

자원봉사단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단

일시 별도 공지
회비 무료

바둑

바둑 대국을 통해
정신 수양은 물론 활기와
즐거움을 더하는 동호회
(바둑대회: 반기별 1회)

일시 금 15:00 ~ 18:00
회비 연 10만 원
(입회비: 10만 원)

검도

심신을 단련하는
검도인의 모임

강사 이봉주 회원 재능기부
일시 화·목 19:00 ~ 21:00
회비 무료

문향루(서예)

묵을 통해 정신 수양을
도모하는 동호회

일시 수 17:00 ~ 18:00
회비 무료

인터넷

온라인상 메일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는 동호회

일시 별도 공지
회비 무료

2017년 봄 이벤트 캘린더

3월

				1	2	3	4
2주차	5	6	7	8	9	10	11
3주차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주차 여행프로그램 : '꽃보다 청춘' 대만편

3주차 이벤트 : 화이트데이 이벤트

4월

								1
1주차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주차	16	17	18	19	20	21	22	
4주차	23/30	24	25	26	27	28	29	

1주차 신규 프로그램 개강 : 도예반 '마음을 빛다' '굿모닝 아침체조'

3주차 동호회 : 숙녀회 2017년 첫 골프모임

4주차 동호회 : 바둑동호회 춘계 바둑대회

5월

				1	2	3	4	5	6
2주차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주차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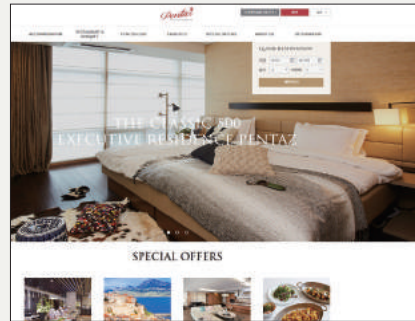
2주차 이벤트 : 어버이날 행사

4주차 이벤트 : 더 클래식 500 패밀리 골프대회

자원봉사단 :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 춘계워크샵

문의 02-2218-5000

더 클래식 500 홈페이지 리뉴얼



더 클래식 500이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고객들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리뉴얼 오픈했다. 최신 적응형 웹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는 '더 클래식 500'의 기업 이미지를 통합할 수 있는 컨셉 아래 각 사업 부문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를 시도했다. 호텔

부문은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최신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시니어 타운은 브랜드 명성에 걸맞는 고급스러움을 바탕으로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에 중점을 뒀다.

www.theclassic500.com

라비앙로즈 '골로 까나렐리 와인 디너' 개최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의 와인 레스토랑 앤 바 라비앙로즈가 지난 3월 23일 국내 최초로 '골로 까나렐리 와인 디너'를 개최했다. 천혜의 경관과 청정한 자연을 자랑하는 코르시카섬의 골로 까나렐리 와인은 포도원의 신선미와 복합미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라비앙로즈가 선보

인 와인은 '골로 까나렐리 블랑 2015'를 비롯하여, '골로 까나렐리 로제 2015', '골로 까나렐리 퀴베 암포라 루즈 2013', '골로 라나렐리 루즈 2013, 2014', '골로 까나렐리 MPG 2012' 등 총 6종이다. 라비앙로즈는 정기적으로 와인 디너를 개최하고 있다. 문의 02-2218-5750

라구뜨 3월 프로모션 메뉴 출시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의 프리미엄 뷔페 라구뜨는 봄을 맞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프로모션 메뉴를 선보였다. 메뉴로는 슈퍼곡물로 떠오르는 프리카와 봄나물을 곁들인 '프리카 리소토', 식이섬유가 풍부한 '세이지향의 단호박과 미니 양배추 구이', 매콤한 맛으로 식욕을 돋우는

'냉이 짬뽕',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탁월한 주꾸미를 사용한 '봄나물 주꾸미 샐러드' 등이다. 이 프로모션 메뉴는 4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문의 02-2218-5770



GYM



GYM



SWIMMING



SPA

FOR YOUR
HEALTHY LIFE

THE CLASSIC 500 PENTAZ HOTEL
FITNESS CLUB

ADDRESS : 90 Neungdong ro, Gwangjin-gu, Korea 05065

TEL : +82-2-2218-5800

WEBSITE : www.pentaz.co.kr



동아일보 주관
2016 한국 시니어 산업 대상
프리미엄 시니어타운 부문

THE CLASSIC 500
PRIVATE SENIOR SOCIETY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의 시작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 더 클래식 500

이 시대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커뮤니티,
24시간 메디컬 케어 서비스, 6성급 호텔을 뛰어넘는 시설과 감동의
서비스까지 이제껏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감동적인 삶이 시작되는 그 곳,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 더 클래식 500



안내문의 : 02) 2218-6000

위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90(구 자양동) 더 클래식 500

www.theclassic500.com